

# 화학적 처리방법의 설계시공 및 시운전 기술

金 億 中

&lt;株&gt;대우엔지니어링 환경사업본부

## 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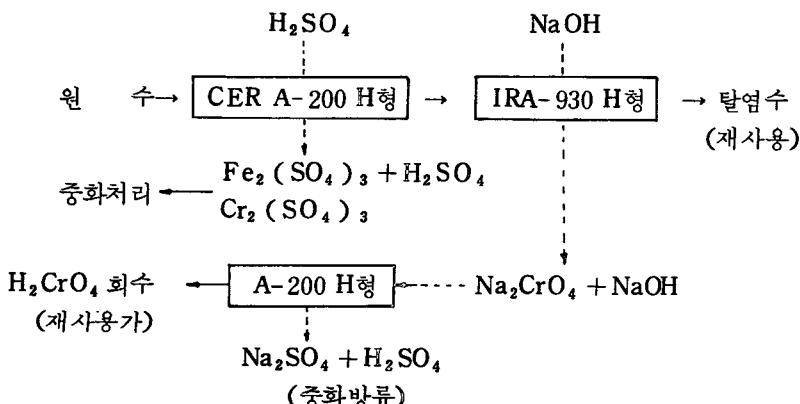
- I. 서언
- II. 화학적 처리 기술의 개요
  - 1. 화학적 처리 방법의 특성
  - 2. 유의사항
- III. 화학적 처리 방법 적용 기술
  - 1. 기초 조사 단계
  - 2. 기본 계획 단계
- IV. 화학적 처리 방법의 공정 설계
  - 1. 중화(Neutralization)
  - 2. 응집(Coagulation, Flocculation)
- 3. 산화(Oxidation)
- 4. 환원(Reduction)
- 5. 이온교환(Ion exchange)
- 6. 전기투석(Electrodialysis)
- 7. 살균(Disinfection)
- V. 고도 처리 기술(Advanced treatment technology)
- VI. 공장별 폐수처리 방법
- VII. 결언

## 마. 이온교환수지에 의한 폐수처리

I.E.R에 의한 폐수처리를 함께 있어 그 특징은 유용한 물질을 회수가 가능하고, 유해물질의 제거율이 높으며 중금속류의 폐수를 제거 처리하는데 효과적이다.

## (1) Cr 도금 폐수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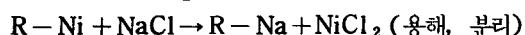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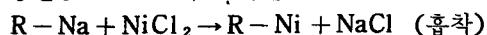
이 반응은 크롬도금 용액의 정제와 세정폐수의 처리등 두가지 목적이 있다. 크롬도금 용액에는 철염등 금속염류가 축적되어 있어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C.E.R(Cation exchange resin)의 H형으로 불순금속이온을 제거한다. 이에대한 Flow는 다음과 같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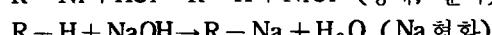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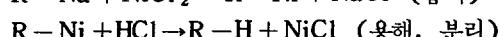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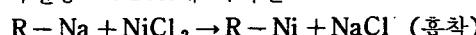
## (2) 니켈(Ni)도금 폐수

니켈도금 폐수는 I.E.R에 의한 처리가 용이하다. 강산성 C.E.R이나 약산성 C.E.R에도 처리가 가능하다.

강산성 C.E.R에 의하면



약산성 C.E.R에 의하면



위의 두방식의 비교는 다음 <표-5>와 같다.

<표-5> 니켈 폐수처리에 IR 120 B와  
IRC-84의 비교

	IR-120 B	IRC-84
용리제	NaCl(10%)	H <sub>2</sub> SO <sub>4</sub> (1%)
축수량 (ℓ/ℓ-R)	340	870
흡착제 (eq/ℓ-R)	1.3	3.3
용태액량 (ℓ/ℓ-R)	7	25
농축비	1/50	1/60
재생비 (W/인)	4,000	3,500

(원액 100M<sup>3</sup> / 일 처리, Ni 140ppm Ca+Mg 60pp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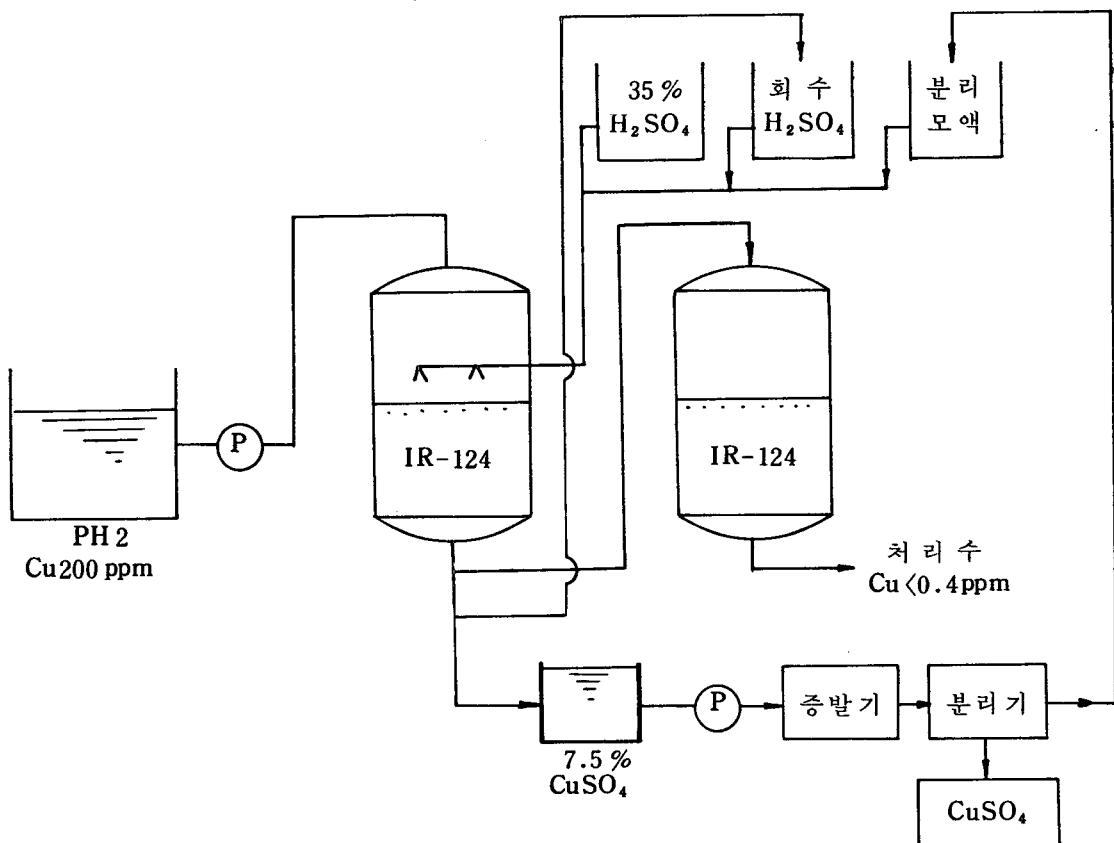


그림 : 동(Cu) 폐수처리법

### (3) 동(Cu)폐수처리

산성의 동폐수처리에는 강산성 C.E.R을 중성이나 알카리성의 동폐수에는 카르본산형 약산성 C.E.R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. 실제 예에 의하면 Cu 200ppm PH 2의 산성동 폐수를 Amkerlite IR-124의 수지탑에 직열로 통과시켜서 Cu 0.4ppm 이하로 처리가 가능했다.

이 방법으로 수지 1ℓ 당 40g - Cu의 동을 흡착할 수 있었다.

### (4) 수은(Hg)폐수처리

수은법 전해 가성소다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수은은 통상  $HgCl_3^-$   $HgCl_4^{2-}$ 의 차운 이온형이다. 다음의 Flow와 같이 Sludge 중의 Hg 용해는  $Cl_2$ 로부터 HCl의 처리등의 방법이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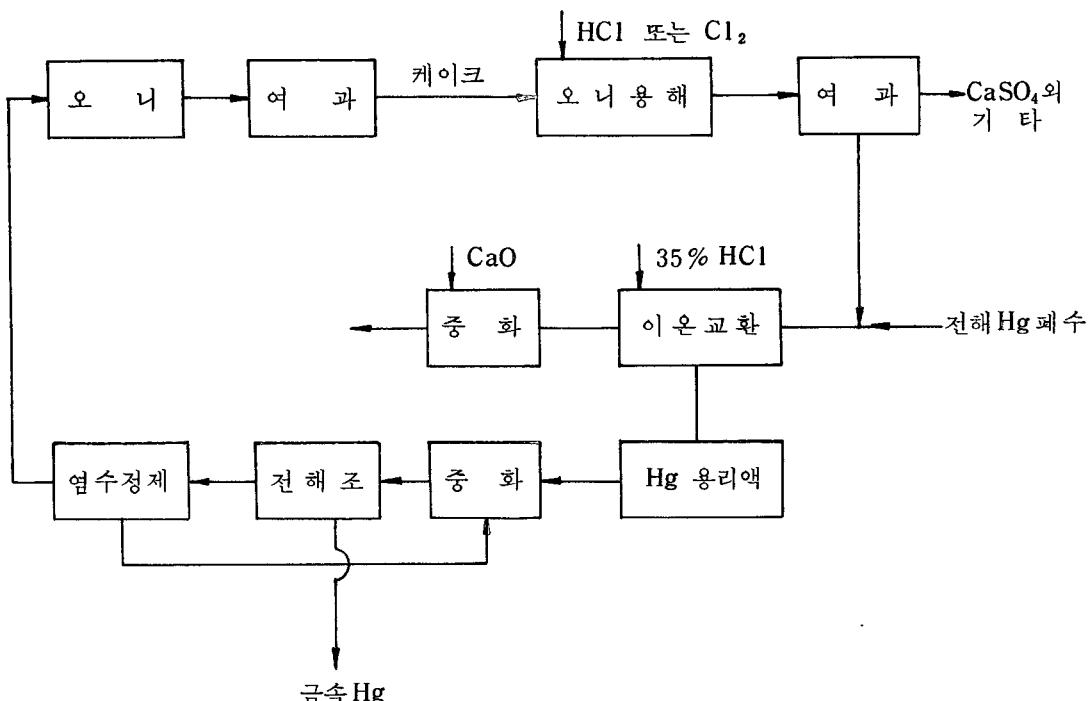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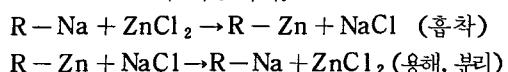
그림 : Sludge 용해법

### (5) 아연(Zn)폐수처리

레이온공장에는 다량의 Zinc를 배출한다. 그 러한 폐수는 주로 강산성 C.E.R을 사용하여 처리하므로 아연을 회수하는 동시에 폐수도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.

다음의 그림과 같이 방사공정중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에는 황산아연( $ZnSO_4$ )과 황산이 함유되어 있어 이것을 Amberlite IR-124를 충진한

수지탑에 통과하여 그의 방출수를 필요에 따라 제 2의 IR-124에 통과하여 처리케 된다. IR-124의 아연 흡착량은 황산, 황산나트륨의 농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IR-124 1ℓ 당  $ZnSO_4$ 로 40~100g가 가능하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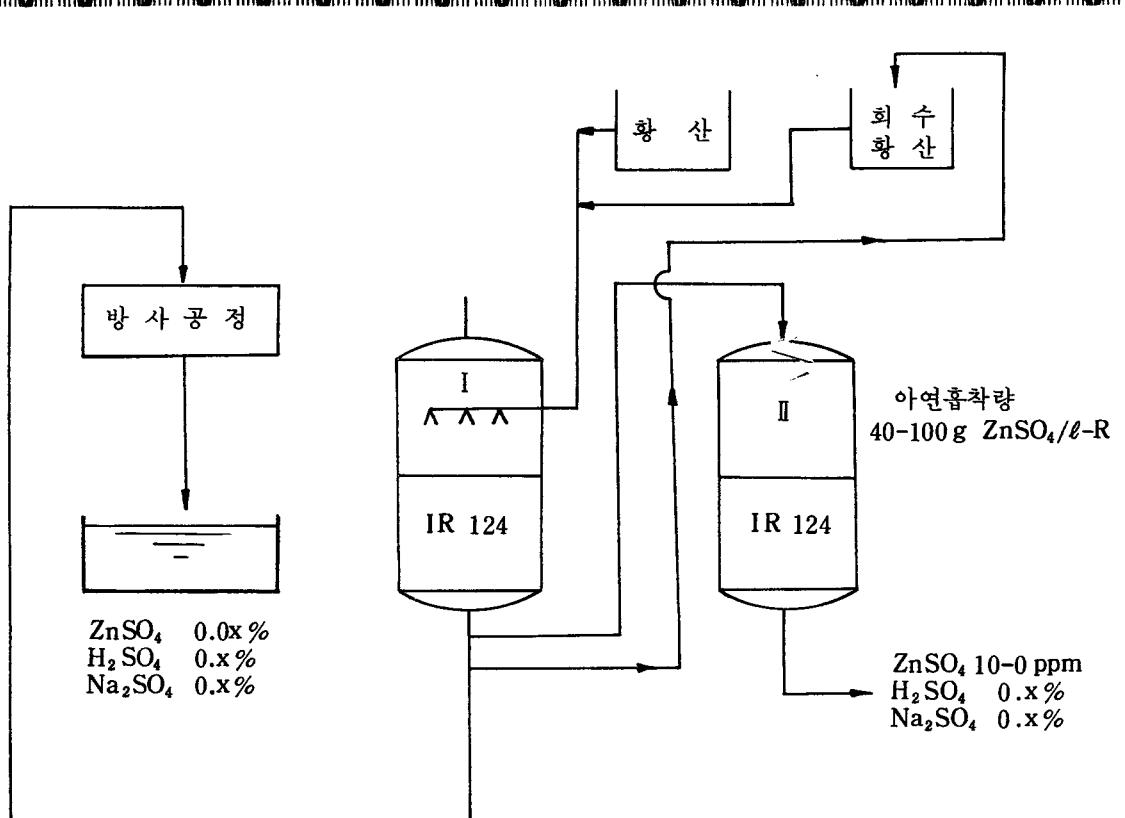


그림 : 아연 폐수처리법

〈다음호에 계속〉

\* 환경속에 사는 우리  
보전하고 보호받자.